

읽기 쉬운 신약성경

Language: 한국어 (Korean)

Provided by: Bible League International.

Copyright and Permission to Copy

Taken from the Korean: Easy-to-Read Version © 2003 by Bible League International.

PDF generated on 2017-08-25 from source files dated 2017-08-25.

9bac292a-0755-530b-b49d-81aef79b3112

ISBN: 978-1-5313-1313-5

마가복음

세례자 요한이 예수를 위해 길을 준비하다

(마 3:1-12; 눅 3:1-9, 15-17; 요 1:19-28)

1 이 글은 하나님의 아들*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이다.² 그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으로 시작된다.

“보아라! 내가 나의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내리니,

그가 너의 길을 미리 준비하리라.”[†]

³“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준비하라.

그분이 오실 길을 곧게 하여라.’”[‡]

⁴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표시로 세례를 받으라고 외쳤다.⁵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그에게 왔다. 사람들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⁶ 요한은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 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살았다.⁷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조금 있으면 어떤 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시다. 나는 꿇어 엎드려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⁸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다

(마 3:13-17; 눅 3:21-22)

⁹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의 나사렛 마을에서 세례자 요한이 있는 곳으로 오셨다. 그리고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¹⁰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그분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셨다.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그분 위로 내려오셨다.¹¹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매우 기뻐하는 아들이다.”

시험 받으러 가시다

(마 4:1-11; 눅 4:1-13)

¹² 그리고 곧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¹³ 예수께서 사십 일 동안 광야에 머무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분은 광야에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고, 천사들이 그분을 섬겼다.

* **1:1 하나님의 아들** 어떤 그리스어 사본에는 이 말이 없음.

† **1:2 보아라...준비하리라.** 말 3:1.

‡ **1:3 사 40:3.**

¶ **1:4 세례자 요한** 여기에 나오는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예수의 제자와 구별하여 세례자 요한이라고 한다.

§ **1:5 요단 강** 유대의 동쪽 지역에 있는 강으로, 북에서 남으로 흐른다.

** **1:9 요단 강** 유대의 동쪽 지역에 있는 강으로, 북에서 남으로 흐른다.

†† **1:12 광야** 너른 들판, 거친 들, 사막 등을 일컫는 말.

‡‡ **1:13 사탄** 악마, 마귀, 귀신 등의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말.

갈릴리에서 일을 시작하시다

(마 4:12-17; 눅 4:14-15)

14 그 뒤에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쁜 소식을 선포하시기 시작하였다. 15 “이제 때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기쁜 소식을 믿어라.”

네 제자를 부르시다

(마 4:18-22; 눅 5:1-11)

16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걸어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는데,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 17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물고기 대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18 시몬과 안드레는 그 자리에서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19 예수께서 조금 더 걸어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20 예수께서 곧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데리고 일하던 일꾼들을 배에 남겨 두고 예수를 따랐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다

(눅 4:31-37)

21 그 뒤에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가버나움 마을[§]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 마을의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22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그들의 율법 선생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23 바로 그때 회당에 있던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24 “나사렛 사람 예수여, 당신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25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조용히 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26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 남자가 온 몸을 떨며 발작하게 만들었다. 그러고는 큰 소리를 지르며 그 남자에게서 나왔다.

27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 서로에게 물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이 사람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것도 권위 있게 가르친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령을 내리니 그들도 순종하지 않는가!” 28 이렇게 하여 예수의 소문이 갈릴리 온 지역으로 삼시간에 퍼져 나갔다.

많은 사람을 고치시다

(마 8:14-17; 눅 4:38-41)

29 예수와 제자들은 곧 회당을 떠났다. 그들은 모두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는데, 야고보와 요한도 그들과 함께 갔다. 30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자리에 누워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시몬의 장모가 병난 것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31 예수께서 그 부인에게 가까이 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그러자 부인의 몸에서 곧 열이 떨어지고 병이 나왔다.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기 시작하였다.

32 그날 저녁 해가 진 뒤에 사람들이 병자들을 많이 데려왔다. 그 가운데는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었다. 33 온 마을 사람이 그 집 문 앞에 모여들었다. 34 예수께서는 여러 가지 병으로

¶ 1:16 시몬 베드로의 다른 이름.

§ 1:21 가버나움 마을 갈릴리 지방에 있는 마을로,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다.

시달리는 많은 사람을 고쳐 주시고, 귀신들도 많이 쫓아내셨다. 그러나 귀신들이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말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기쁜 소식 선포를 준비하시다

(눅 4:42-44)

35 다음 날 아침 예수께서는 매우 일찍 일어나셨다. 그리고 아직 날이 밝기 전에 집을 나와 외딴 곳으로 가서서 거기서 기도하고 계셨다. 36 시몬과 다른 제자들이 그분을 찾아다니다가, 37 기도하고 계신 예수를 보았다. 그들이 예수께 말씀드렸다. “모든 사람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38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다른 곳으로 가자. 여기서 가까운 곳에 여러 마을이 있다. 거기에 가서도 가르쳐야겠다. 이 일을 위해 내가 왔다.” 39 예수께서는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병든 사람을 고치시다

(마 8:1-4; 눅 5:12-16)

40 나병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왔다. 그가 무릎을 꿇고 예수께 간절히 청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낮게 하실 수 있습니다.”

41 예수께서 그 사람을 보고 가엾게 여기셨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말씀하셨다. “그래, 너를 고쳐 주고 싶다. 깨끗하게 나아라!” 42 그러자 그의 병이 곧 나았다. 그는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

43 예수께서 그 사람을 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44 “아무에게도 이 일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너는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제물을 드려라.¶ 그렇게 하여 몸이 나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하여라.” 45 그러나 그는 나가서 자기의 병이 나은 이야기를 퍼뜨렸다. 이 일 때문에 예수께서 더는 마음대로 마을에 드나드시지 못하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마을 밖으로 나가 사람들의 왕래가 뜸한 곳에 머무셨다. 그런데도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께 모여들었다.

중풍병 환자를 고치시다

(마 9:1-8; 눅 5:17-26)

2 며칠 뒤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셨다. 예수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²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집 안은 물론 바깥에도 발 들여 놓을 틈이 없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다. ³ 그때 몇 사람이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왔다. 네 사람이 그를 들것에 실어 메고 왔으나,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다. ⁴ 그래서 그들 네 사람은 메고 있던 들것을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갔다. 그들은 예수께서 계신 방 위의 지붕에 구멍을 내고, 그 구멍으로 중풍병 환자를 들것에 누인 채 달아 내렸다. ⁵ 예수께서 이들의 믿음을 좋게 보셨다. 그리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아,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 1:34 귀신들...때문에 귀신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 1:41 가엾게 여기셨다 대부분의 그리스어 사본에는 가엾게 여기셨다고 되어 있으나, 어떤 권위 있는 그리스어 사본과 라틴어 사본에 왜 화가나셨다고 되어있는지는 설명하기 어렵다. 많은 학자들은 요즈음 화가나셨다고 되어있는 사본이 더 원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 1:42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 종교 의식에 따라 깨끗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다.

¶ 1:44 모세가 명한 대로...드려라 피부병에 걸렸던 사람이 나오면, 모세의 법에 따라 제사장의 확인을 받은 뒤 정해진 제물을 바쳐야 했다(레 14:2-32).

§ 2:1 가버나움 갈릴리 지방에 있는 마을로,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다.

6 그곳에는 율법 선생들도 몇 사람 앉아 있었다. 그들은 예수의 말을 듣고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7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짓고 있구나. 하나님 감고는 감히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던 말인가?”

8 예수께서 곧 그들의 생각을 알아차리시고 그들에게 물으셨다. “어찌하여 그런 생각을 하느냐? 9 이 중풍병 환자에게,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거두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라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10 사람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 죄를 용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증명해 보이겠다.” 그리고 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11 “자, 일어나 자리를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12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섰다. 그는 자리를 거두어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걸어 나갔다. 그것을 보고 모두들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놀라운 일을 본 적이 없다.”

레위 (마태)가 예수를 따르다

(마 9:9-13; 눅 5:27-32)

13 예수께서 다시 호숫가로 나가시자 많은 사람이 따라갔다.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14 그 뒤에 예수께서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알패오의 아들 레위를 보셨다. 그는 세무원**이었다. 그때 레위는 세관에 앉아 있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시자,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랐다.

15 예수께서 레위의 집에서 저녁을 드시게 되었다. 많은 세무원들††과 죄인‡‡들이 예수와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6 바리새파의 율법 선생들이 예수께서 죄인들과 세무원들과 함께 음식 잡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저 사람은 세무원들과 죄인들과 어울려 음식을 먹습니까?” 17 예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어느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신 예수

(마 9:14-17; 눅 5:33-39)

18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있을 때였다. 몇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19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혼인 잔치집에 온 신랑의 친구들이 금식하는 것을 보았느냐? 그들은 신랑과 같이 있는 동안에는 슬퍼할 까닭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지 않는다. 20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날에 친구들이 금식할 것이다.

21 낡은 옷에 구멍이 생겨 천을 대어 기울 때, 아직 줄지 않은 새 천을 대어 기는 사람은 없다. 만약 그렇게 하면 새 천이 줄면서 낡은 옷을 잡아당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옷이 더

**2:14 세무원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로마는 유대 사람을 고용하여 세금을 거두었는데, 이 세무원들이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떼먹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에게서 죄인 또는 반역자 취급을 당했다.

††2:15 세무원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로마는 유대 사람을 고용하여 세금을 거두었는데, 이 세무원들이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떼먹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에게서 죄인 또는 반역자 취급을 당했다.

‡‡2:15 죄인 바리새파 사람들은 직업상으로는 종교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모두 죄인으로 여겼다.

¶¶2:18 요한 유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가르친 세례자 요한(막 1:4-8).

해어지지 않겠느냐? ²² 마찬가지로 낡은 포도주 부대 ^{§ 5}에 새 포도주를 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부대도 모두 못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예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

(마 12:1-8; 눅 6:1-5)

²³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셨다. 제자들은 걸어가면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 ²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께 따지기 시작하였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선생께서는 제자들이 저런 짓을 하도록 놓아두십니까? 안식일에 저런 짓을 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²⁵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다윗*과 그를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릴 때에, 다윗이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²⁶ 아비야달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의 일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빵을 먹었다. 율법에 따르면 그 빵은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빵이었다. 다윗은 자기 일행에게도 그 빵을 나누어 주었다.”

²⁷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²⁸ 사람의 아들은 모든 날의 주인이다. 그러니 안식일의 주인이기도 하다.”

안식일에 마비된 손을 펴 주시다

(마 12:9-14; 눅 6:6-11)

3 안식일에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가셨다. 회당에는 한쪽 손을 못 쓰는 사람이 와 있었다. ² 그곳에 있던 몇몇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 법을 어기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치실 것인지 지켜보고 있었다. ³ 예수께서 한 손을 못 쓰는 남자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일어서라.”

⁴ 그리고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물으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나, 아니면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나? 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나, 아니면 죽이는 것이 옳으나?”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⁵ 예수께서는 화나신 얼굴로 그들을 둘러보셨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안타까워하시며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을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밀자 그의 손이 완전히 나았다. ⁶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회당에서 나가서 헤롯 당[†] 원들과 함께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였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르다

⁷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로 가셨다. 수많은 사람이 떼 지어 갈릴리로부터 예수를 따라왔다. ⁸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과 이두매와 요단 강[‡] 건너편 지역과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도 많은 사람이 왔다. 그들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전해 듣고 온 사람들이었다. ⁹ 예수께서 밀어닥치는 많은 사람을 보시고, 그들에게 밀리지 않으시려고 제자들에게 당신을 위해 작은 배를 하나 준비하라고 이르셨다. ¹⁰ 예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쳐 주셨기 때문에 온갖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그분을 만지려고 밀려들었던 것이다. ¹¹ 더러운 영 들린 사람들도 있었다. 더러운 영들은 예수를 보자 그분 앞에 엎드리며 외쳤다. “당신은 하나님의

§ **2:22 포도주 부대** 포도주를 넣어 두기 위해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부대.

* **2:25 다윗** 기원전 1000년 즈음에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

† **3:6 헤롯 당** 당시 세력이 크던 유대의 정치 단체.

‡ **3:8 요단 강** 유대의 동쪽 지역에 있는 강으로, 북에서 남으로 흐른다.

아들이십니다.”¹²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이 누구이신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더러운 영들에게 엄하게 명령하셨다.

열두 사도를 부르시다

(마 10:1-4; 눅 6:12-16)

¹³ 그 뒤에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마음에 두셨던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 왔다. ¹⁴ 예수께서 열두 사람을 따로 뽑아 사도라는 이름으로 부르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이 사람들을 당신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 말씀을 널리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¹⁵ 또한 이들이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기도 하였다. ¹⁶ 그분께서 뽑으신 열두 사도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예수께서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지어 주신) 시몬과 ¹⁷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과(이 두 사람에게에는 ‘우리의 아들들’이라는 뜻을 지닌 보아너게스라는 이름을 지어 주셨다.) ¹⁸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매와 마태와 도마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대오와 열심쟁이라고 알려진 시몬과 ¹⁹ 그리고 유다이다. 유다는 가리옷 사람으로 나중에 예수를 배반한 사람이다.

예수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마 12:22-32; 눅 11:14-23; 12:10)

²⁰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또다시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그래서 예수와 제자들은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²¹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께서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를 잡으려 나섰다.

²²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 선생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안에 바알세불[¶]이 살고 있다. 그는 귀신 두목의 힘을 빌려 다른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다.”

²³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모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다. “사탄^{**}은 사탄을 쫓아낼 수 없다. ²⁴ 만약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바로 설 수 없다. ²⁵ 한 가정도 갈라지면 제대로 버티어 나가지 못하고 망해 버린다. ²⁶ 사탄이 스스로 반란을 일으켜 자기를 따르는 자들과 싸우면 그는 계속 버릴 수가 없다. 그는 끝장이 나고 말 것이다. ²⁷ 만약 어떤 사람이 힘센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물건을 털어 가려면, 그 사람은 먼저 그 힘센 사람을 묶어 놓아야 한다. 그렇게 해 놓은 다음에야 그는 그 힘센 사람의 집을 털 수 있다. ²⁸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비롯하여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는 용서 받을 수 있다. ²⁹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결코 용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는 영원히 용서 받지 못할 죄를 짓는 것이다.”

³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율법 선생들이 “예수 안에 귀신^{††}이 살고 있다.” 고 말하기 때문이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의 가족

(마 12:46-50; 눅 8:19-21)

³¹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이 왔다. 그들은 바깥에 서서 예수를 불러 달라고 사람을 들여보냈다. ³² 무리가 예수를 둘러싸고 앉아 있다가 그분께 말씀드렸다. “선생님,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 3:22 바알세불 다른 민족의 신의 이름(왕하 1:2). 신약에서는 더러운 영, 귀신, 마귀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

[§] 3:23 비유 어떤 사물이나 생각을 설명하기 위해 쓰는 이야기 방식.

^{**} 3:23 사탄 악마, 마귀, 귀신 등의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말.

^{††} 3:30 귀신 글자 그대로의 뜻은 ‘더러운 영’.

^{‡‡} 3:32 누이들이 그리스어 사본에는 이 말이 없다.

³³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형제들이나?” ³⁴ 예수께서 옆에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다시 말을 이으셨다. “여기에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 있다. ³⁵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내 형제이고 누이이며 어머니이다.”

씨 뿌리는 비유

(마 13:1-9; 눅 8:4-8)

4 예수께서 다시 호숫가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였다.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배를 타고 그 안에 앉으신 다음 배를 호수에 띄웠다. 사람들은 모두 호숫가에 머물러 있었다. ²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앉으신 채 많은 것을 가르치셨는데, 주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³ “자, 잘 들어라.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⁴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앗은 길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모두 쪼아 먹었다. ⁵ 어떤 씨앗은 흙이 얇은 자갈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서 곧 싹이 나왔으나, ⁶ 해가 올라오자 타 버렸다. 그 싹은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말라 버렸던 것이다. ⁷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로 덮인 밭에 떨어졌다. 가시덤불이 자라나 그 싹을 덮어 버리자, 싹은 더 자라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였다. ⁸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좋은 땅에서 싹이 나고 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래서 삼십 배 또는 육십 배가 된 것도 있었고, 백 배가 된 것도 더러 있었다.”

⁹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비유를 쓰신 까닭

(마 13:10-17; 눅 8:9-10)

¹⁰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에, 열두 제자와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전에 말씀하신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여쭙었다.

¹¹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해 준다. ¹² 그것은 ‘그들이 내가 하는 일을 보아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 말을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이 깨닫고 알아듣기만 하면 내게로 돌아와 용서를 받을 것이다.’”^{§ §}

씨에 관한 비유를 설명하시다

(마 13:18-23; 눅 8:11-15)

¹³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비유^{*}의 숨은 뜻을 알지 못하느냐?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한다면 무슨 비유인들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¹⁴ 씨를 뿌리는 사람이 말씀의 씨를 뿌린다. ¹⁵ 때로는 말씀의 씨가 길에 떨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길에 떨어진 씨와 같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사탄[†]이 와서 그들 속에 심긴 말씀을 빼앗아 간다. ¹⁶ 또 어떤 사람들은 자갈밭에 뿌려진 씨와 같아서, 말씀을 들을 때 기쁜 마음으로 열른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 ¹⁷ 그러나 그 말씀이 그들의 삶 속으로

[¶] **4:2 비유** 어떤 사물이나 생각을 설명하기 위해 쓰는 이야기 방식.

^{§ §} **4:12** 사 6:9-10.

^{*} **4:13 비유** 어떤 사물이나 생각을 설명하기 위해 쓰는 이야기 방식.

[†] **4:15 사탄** 악마를 일컫는 말.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람을 유혹하는 일을 한다.

깊이 뿌리내리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이 그들 속에서 오래 가지 못한다. 말씀 때문에 고통이나 박해[‡]를 받게 되면, 그들은 재빨리 떨어져 나간다.¹⁸ 또 어떤 사람들은 가시덤불로 덮인 밭에 뿌려진 씨와 같아서 말씀을 듣기는 한다.¹⁹ 그러나 세상의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의 다른 욕심들이 들어와서, 말씀의 숨을 막아 버린다. 그래서 말씀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한다.²⁰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잘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는다. 어떤 사람은 삼십 배 또는 육십 배의 열매를 맺는다. 때로는 백 배의 열매를 맺기도 한다.”

가지고 있는 것은 반드시 써야 한다

(눅 8:16-18)

²¹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등잔에 불을 켜서 곡식이 되는 말[¶] 아래에나 침대 밑에 놓느냐? 등잔대 위에 올려놓지 않느냐? ²²무엇이든지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비밀로 감춰진 것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²³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여라.”

²⁴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너희는 지금 듣는 말을 잘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되어서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어서 주시되 덤으로 더 많이 주실 것이다. ²⁵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받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씨앗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다

²⁶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다.²⁷ 씨를 뿌린 사람이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움이 터서 자라기 시작한다. 씨는 밤낮으로 자라지만, 씨 뿌린 사람은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다.²⁸ 땅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제 힘으로 곡식을 키워 낸다. 먼저 줄기가 자라고 다음에 이삭이 나고, 그리고 이삭이 여물어 알곡이 된다.²⁹ 이렇게 해서 곡식이 알맞게 익으면, 씨 뿌린 사람은 곡식을 베려고 낫을 낸다. 곡식을 거둬들일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마 13:31-32, 34-35; 눅 13:18-19)

³⁰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무슨 비유를 들어야 잘 설명할 수 있을까? ³¹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 땅에 심는 씨앗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다. ³²그러나 심으면 자라서 밭에 있는 어떤 푸성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을 나는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³³ 예수께서는 이와 비슷한 많은 비유를 들어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만한 것은 다 가르치셨다.³⁴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언제나 비유를 써서 가르치셨다. 그러나 사람들과 떨어져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

폭풍을 잠재우시다

(마 8:23-27; 눅 8:22-25)

³⁵ 바로 그날 저녁 무렵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³⁶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떠나 예수께서 타고 계시던 배에 올라 호수를 건너갔다. 다른

[‡] 4:17 박해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적들에게서 육체적 혹은 정신적 상처를 입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것.

[¶] 4:21 말 그리스어로 ‘모디오스’. 약 7.5 리터 들이의 용기.

[§] 4:31 겨자씨 자라서 겨자나무가 된다. 겨자나무의 키는 보통 1.5미터 정도인데, 갈릴리 호수 둘레에서는 3미터까지 자라기도 한다. 과학적으로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작은 씨앗에 속한다.

배들도 따라오고 있었다. ³⁷ 그때 호수에 세찬 바람이 일어났다. 물결이 배 안으로 솟구쳐 들어와 배에 물이 가득 찰 정도가 되었다. ³⁸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배의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은 예수를 깨우며 부르짖었다. “선생님, 우리가 빠져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³⁹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에게 명령하셨다. “고요하고, 잔잔해져라!”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사방이 매우 조용해졌다.

⁴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그리 무서워하느냐? 너희들은 아직도 믿음이 없단 말이나?”

⁴¹ 제자들은 몹시 두려워 떨며 서로 수군거렸다. “이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바람과 물결도 이분의 말씀엔 꼼짝도 못 하지 않는가!”

더러운 영 들린 사람을 고치시다

(마 8:28-34; 눅 8:26-39)

5 예수와 제자들은 호수를 건너 거라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갔다. ²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더러운 영†† 들린 남자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를 만났다. ³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다. 누구도 그를 묶어 놓을 수 없었고, 쇠사슬도 소용이 없었다. ⁴ 여러 번 사람들이 그의 팔과 다리를 쇠사슬로 묶어 보았으나, 그는 사슬을 끊고 뛰쳐나왔다. 그를 다룰 만큼 힘센 사람이 없었다. ⁵ 그는 밤낮으로 무덤 사이나 산 속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돌로 제 몸에 상처를 입혔다.

⁶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렸다. ⁷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어떻게 하려 하십니까? 나를 해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해 주십시오.” ⁸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이었다.

⁹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 남자가 대답하였다. “제 이름은 레기온 ‡‡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¹⁰ 그 더러운 영들이 예수께, 자기들을 그 지역 밖으로 쫓아내지 말아 달라고 여러 차례 애원하였다.

¹¹ 마침 가까운 언덕에서 큰 돼지 떼가 먹이를 먹고 있었다. ¹² 더러운 영들이 예수께 애원하였다. “우리를 저 돼지들 속으로 보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¹³ 예수께서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셨다. 더러운 영들은 그 남자에게서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 떼가 비탈을 내리달아 호수에 빠져 죽었다. 어림잡아 이천 마리 정도는 되었다.

¹⁴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그들은 읍내와 시골 마을로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몰려나왔다. ¹⁵ 그들은 예수께 왔다가, 군대 귀신 들렸던 남자를 보았다. 그는 옷을 입고 바른 정신으로 돌아와 앉아 있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겁이 났다. ¹⁶ 이 사건을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들은 뒤에 온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남자와 돼지 떼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다. ¹⁷ 사람들은 예수께 그 지역을 떠나 달라고 간청하였다.

¹⁸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려 할 때에, 귀신 들렸던 남자가 함께 가게 해 달라고 애원하였다.

¹⁹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가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에게 타이르셨다. “네 가족과 친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거라. 가서 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하신 모든 일을 말해 주어라. 주께서 너를 불쌍히 여겨 어떤 일을 해 주셨는지 이야기하여라.” ²⁰ 그는 예수를

**5:1 거라사 어떤 그리스어 사본에는거다라 또는 거게스라고 되어있다.

††5:2 더러운 영 귀신.

‡‡5:9 레기온 약 6,000명 정도로 이루어진 로마 군대의 한 사단.

떠나 데가볼리[¶]로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다. 모든 사람이 듣고 놀라워하였다.

죽은 소녀를 살리고, 병든 여인을 고치시다

(마 9:18-26; 눅 8:40-56)

21 예수께서 배를 타고 다시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분이 계시는 호숫가로 모여들었다. 22 아이로라고 하는 회당장[§]도 예수를 찾아 그곳으로 왔다. 아이로가 예수를 뵈고, 그 발 앞에 엎드려 23 간곡히 청하였다. “제 어린 딸이 죽어 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오셔서 제 딸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의 병이 나아 살겠습니까?”

24 그래서 예수께서 아이로와 함께 가셨다. 많은 사람이 따라가면서 예수를 밀었다.

25 그 가운데는 열두 해 동안 고르지 못한 달거리^{*}로 고생하는 여자도 있었다. 26 여자는 그 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였다. 의사들을 찾아다니느라 가진 재산도 다 써 버렸다. 그러나 병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었다. 27 여자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예수를 바싹 따르다가,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다. 28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29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피 흐르는 것이 멈추었다. 여자는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느꼈다. 30 예수께서는 자신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셨다. 그래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며 물으셨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31 제자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사람들이 이렇게 사방에서 선생님을 밀어대고 있는데,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라고 물으십니까?”

32 그러나 예수께서는 계속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손 든 사람을 찾으셨다. 33 여자는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알았다. 그래서 앞으로 나서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여자는 두려워 떨며,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드렸다. 34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걱정 말고 가거라. 다시는 이 병으로 고생하지 않을 것이다.”

35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회당장 아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다. 그들은 회당장에게 “따님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께 수고를 끼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36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이 전하는 말을 다 듣고도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믿기만 하여라.”

37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말고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38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많은 사람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셨다. 39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리 울며 소란을 떠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자고 있다.” 40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비웃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셨다.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세 제자만 데리고 아이가 누워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다. 41 예수께서 소녀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탈리다, 쿨!” (이 말은 번역하면 “작은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라는 뜻이다.) 42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다니기 시작하였다. 소녀는 열두 살이었다.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같이 있던 제자들은 이 일을 보고 크게 놀랐다. 43 예수께서는 아이의

¶ **5:20 데가볼리** ‘10개의 도시’ 라는 뜻. 갈릴리 호수의 동쪽 지역을 가리킨다. 한때는 그 지역에 열 개의 주요 도시가 있었다.

§ **5:22 회당장** 유대 사람들이 기도하거나 성경을 공부하고 회의를 하던 회당의 책임자.

* **5:25 고르지 못한 달거리** 또는 ‘월경 불순’. 율법에서는 이 병을 부정하게 여겨, 이 병에 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금하고 있다.

† **5:36 회당장** 유대 사람들이 기도하거나 성경을 공부하고 회의를 하던 회당의 책임자.

부모에게 이 일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명하셨다. 그리고 나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고향에 가시다

(마 13:53-58; 눅 4:16-30)

6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² 안식일이 되어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많은 사람이 그 가르침을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지식을 얻었을까? 그리고 저 지혜는 어디서 배웠으며, 저런 기적을 일으키는 힘은 어디서 났을까?” ³ 그는 천한 목수가 아닌가? 그는 마리아의 아들이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이고, 그의 누이들도 지금 우리와 함께 앉아 있지 않은가?”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⁴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다른 곳에서는 존경을 받아도, 고향과 친척과 자신의 집에서는 존경 받지 못하는 법이다.” ⁵ 예수께서는 고향에서 어떤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오직 몇몇 병자들에게 손을 얹어 병을 고쳐 주셨을 뿐이었다. ⁶ 예수께서는 고향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을 보고 몹시 놀라셨다.

사도들을 전도 여행에 내보내시다

(마 10:1, 5-15; 눅 9:1-6)

그 뒤에 예수께서는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마을들을 찾아다니면서 가르치셨다. ⁷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내보내셨다. 그들에게 더러운 영을 물리치는 권세도 주셨다. ⁸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가라. 빵이나, 가방이나, 돈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⁹ 신은 신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갈아입을 옷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¹⁰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묵어라. ¹¹ 만일 어느 마을이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마을을 떠나거라. 그리고 떠날 때에는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 버려라. 이것이 심판 날에 그들의 죄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이다.”

¹² 제자들은 여러 마을을 다니며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¹³ 그리고 많은 귀신을 몰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쳐 주었다.

헤롯이 예수를 세례자 요한으로 생각하다

(마 14:1-12; 눅 9:7-9)

¹⁴ 헤롯왕[¶]도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예수의 이름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에게서 이런 기적의 힘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죽은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틀림없다.”

¹⁵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는 엘리야^{**}다.” 라고 말하였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는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예언자다.” 라고 말하였다

¹⁶ 그러나 헤롯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 헤롯이 그렇게 말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 6:13 기름 주로 올리브 기름이 약으로 사용되었다.

[¶] 6:14 헤롯왕 헤롯 안티파스. 헤롯대왕의 아들로서,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영주로 있었다.

[§] 6:14 세례자 요한 유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가르친 요한(막 1:4-8).

^{**} 6:15 엘리야 기원전 850년 무렵에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

세례자 요한의 죽음

17-18 헤롯은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했었다. 그러자 요한은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그래서 헤롯은 요한을 잡아 감옥에 넣으라는 명령을 내렸다. 19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그를 죽이고 싶어하였으나 죽이지는 못하였다. 20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헤롯은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러면서도 즐겨 그의 설교를 들었다.

21 그러다가 헤로디아에게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롯은 자신의 생일을 맞이하여 잔치를 벌였다. 그는 정부의 고관들과 군대의 장성들과 갈릴리의 유력 인사들을 초대하였다.

22 잔치가 한창일 때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의 손님들을 기쁘게 하였다.

그래서 헤롯이 그 소녀를 보고 말하였다. “네 소원을 말해 보아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23 그는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줄 테니 어서 말해 보아라.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떼어 주겠다.” 라고 소녀에게 약속하였다.

24 소녀는 제 어머니에게 가서 물었다. “임금님께 무엇을 달라고 청할까요?”

헤로디아가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

25 소녀는 곧 왕에게 가서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주십시오. 지금 곧 쟁반에 담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26 왕은 매우 괴로웠지만 손님들 앞에서 한 맹세 때문에 소녀의 청을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27 그래서 왕은 경비병을 보내며 요한의 머리를 베어 오라고 명하였다. 경비병은 감옥으로 가서 요한의 머리를 베어, 28 쟁반에 담아 왔다. 왕은 그것을 소녀에게 주었고, 소녀는 그것을 제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29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그의 주검을 찾아가다가 무덤에 모셨다.

오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다

(마 14:13-21; 눅 9:10-17; 요 6:1-14)

30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보냈던 열두 사도가 돌아왔다. 사도들은 예수께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모두 말씀드렸다. 31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우리 어디 조용한 곳으로 가서 쉬도록 하자.” 그곳에는 오가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32 그들은 조용한 곳을 찾아 배를 타고 떠났다. 33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가운데 계신 것을 알았다. 그래서 여러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께서 타신 배가 향하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들은 예수와 제자들보다 앞서 도착해 있었다.

34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는 마음이 아프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 떼 같았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셨다.

35 어느덧 날이 저물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씀드렸다. “여기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또 시간도 매우 늦었습니다. 36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들이 가까운 농가나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37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다 먹일 빵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빵을 사려면 이백 데나리온[†]은 있어야 하겠습니까.”

38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고 오너라.”

그들이 알아보고 와서 말씀드렸다. “보리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 6:37 데나리온 고대 로마의 은 돈.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

39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풀밭 위에 무리 지어 앉히라고 말씀하셨다. 40 사람들은 오십 명 또는 백 명씩 무리 지어 앉았다. 41 예수께서 보리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그리고 빵을 찢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먹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물고기 두 마리도 나누어 사람들에게 돌리게 하셨다. 42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43 제자들은 사람들이 먹고 남은 것을 모았다. 그랬더니 열두 바구니나 되었다. 44 이 음식을 먹은 사람은 남자 어른만 해서 오천 명은 되었다.

물 위를 걸으시다

(마 14:22-33; 요 6:16-21)

45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호수 건너편 벧새다로 먼저 보내셨다. 그리고 당신은 뒤에 남아 사람들을 해쳐 보내셨다. 46 사람들이 흩어져 가자, 예수께서는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다.

47 그날 밤, 배는 아직도 호수 한 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셨다. 48 예수께서 호수 저 멀리 배가 떠 있는 것을 보셨다. 제자들이 노를 저으려고 애쓰고 있는 것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 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새벽 서너 시쯤에 예수께서 배 있는 곳으로 오셨다. 물 위를 걸어서, 배를 지나쳐 가시려는 것처럼 다가오셨다. 49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그분을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를 질렀다. 50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보고 무서워 떨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걱정하지 말아라! 나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51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잔잔해졌다. 제자들이 몹시 놀랐다. 52 그들은 마음이 무디어, 빵의 기적을 보고도 그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많은 사람을 고치시다

(마 14:34-36)

53 예수와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 게네사렛에 이르렀다. 54 그들이 배를 매어 놓고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았다. 55 그들은 온 지역을 뛰어다니면서, 병자들을 들것에 싣고, 예수께서 어디에 계시든지 그곳으로 데리고 왔다. 56 예수께서 읍이나 도시나 산골 마을이나 어디를 가시든지, 사람들은 병자들을 장터로 데리고 나왔다. 그리고 예수께 그 옷자락 끝이라도 손을 대게 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하나님의 법과 사람이 만든 규칙

(마 15:1-20)

7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선생 몇 명이 예수께 물려왔다. 2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깨끗하지 않은’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3 바리새파 사람들과 다른 유대 사람들은 장로 † ‡ 들의 전통에 따라, 정해진 의식에 맞게 손을 씻은 뒤에야 음식을 먹었다. 4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 깨끗이 씻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그 밖에도 그들이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여러 가지 전통을 지켰는데, 그 가운데에는 잔이나 단지나 놋그릇을 씻는 것도 들어 있었다. ¶ ¶

5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선생들이 예수께 물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6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이사야가 한 말이 옳다. 이사야서에 이렇게 쓰여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높여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구나.

† ‡ 7:3 장로 나이가 지긋하고 사회적으로 존경 받는 지도자.

¶ ¶ 7:4 잔...놋그릇 어떤 그리스어 사본에는 '긴 의자들'이 들어있다.

7 그들은 나를 헛되이 예배하며, 사람이 만든 규칙을 가르칠 뿐이다.’^{§ 5}

8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사람이 만든 규칙에만 매달려 있다.”

9 예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도 저버린다. 10 모세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부모에게 저주의 말을 하는 자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 고도 말하였다. 11 그러나 너희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라는 뜻으로 ‘고르반’ 이라고 한 마디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12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는 아무것도 해 드리지 못하게 한다. 13 너희는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전통으로 하나님의 법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고 있다. 너희는 이런 일을 너무도 많이 저지르고 있다.”

14 예수께서 다시 사람들을 부르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내 말을 잘 듣고 깨닫도록 하여라. 15 사람의 몸 바깥에 있는 것이 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16 †}

17 예수께서 사람들을 떠나 어떤 집으로 들어가셨다. 제자들이 이 비유에 대해 여쭙었다. 18 “너희들은 그렇게도 무디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사람의 몸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느냐? 19 밖에서 들어온 음식물은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것은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몸 밖으로 나간다.” (이 말씀으로 예수께서는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고 선언하셨다.)

20 그리고 또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21 사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음란한 행실, 도둑질, 살인, 22 간음, ¶ 탐욕, 악의, 시기, 방탕, 시기, 혈똥는 말,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23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사람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외국 여인을 도우시다

(마 15:21-28)

24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셔서, 어느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곳 사람들에게 당신이 거기 와 계신 것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셨으나 결국 알려지고 말았다. 25 한 여자가 예수께서 거기 계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 여자에게는 더러운 영** 들린 어린 딸이 있었다. 그래서 여자는 예수께 찾아와 그 발 앞에 엎드렸다. 26 그 여자는 유대 사람이 아니라 시리아의 한 지방인 페니키아에서 태어난 그리스 사람이었다. 여자는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27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의 아이들이 먹을 빵을 빼앗아 개들 † † 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먼저 내 집의 아이들을 배불리 먹여야 한다.”

28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상 밑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먹다 남긴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 5:7 사 29:13.

*7:10 부모를...하라 출 20:12; 신 5:16.

† 7:10 부모를...당해야 한다 출 21:17.

‡ 7:16 절 어떤 그리스어 사본에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잘 새겨들여라.” 라는 16절이 있으나, 가장 오래되고 우수한 그리스어 사본에는 들어 있지 않다.

¶ 7:22 간음 아내나 남편이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가짐으로써, 순결을 지키겠다는 결혼 서약을 깨는 것.

§ 7:24 두로 혹은 띠틀로. 갈릴리 지방 지중해변에 있는 항구 도시로, 지금은 레바논에 속해 있다.

**7:25 더러운 영 또는 ‘귀신’. 악마에게서 나온 악한 영.

† † 7:27 개들 유대 사람들은 다른 민족을 종종 개로 표현하며 싫어하였다.

29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셨다. “그래, 네 말이 옳다. 이제 집으로 가거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떠났다.”

30 여자는 집으로 돌아갔다. 아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귀신은 이미 아이를 떠나가고 없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다

31 예수께서 두로 지방을 떠나 시돈을 거쳐 지나가셨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로 내려가서 데가볼리 † † 지역으로 들어가셨다. 32 그곳에서 사람들이 한 남자를 예수께 데려왔다. 그 남자는 귀가 먹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사람들은 그에게 손을 얹어 병을 고쳐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33 예수께서 그를 사람들 가운데서 불러내어 한 쪽으로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 그의 두 귀에 손가락을 넣으셨다. 그리고 다시 손가락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대셨다. 34 예수께서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에바다!” (이 말은 ‘열려라!’ 라는 뜻이다.) 35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제대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36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이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나 예수께서 아무리 엄히 이르셔도 사람들은 그 일을 더욱 널리 알렸다. 37 사람들은 매우 놀라며 이렇게 말하였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모두가 훌륭하다. 듣지 못하던 사람을 듣게 하시고, 말 못 하던 사람을 말하게 하신다!”

사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다

(마 15:32-39)

8 그 무렵에 다시 많은 사람이 예수께 모여들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2 “이 사람들이 가없구나. 나와 함께 있는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다. 3 그들을 굶긴 채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가는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이 가운데에는 먼 곳에서 온 사람들도 더러 있다.” 4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있으니,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충분한 빵을 살 수 있겠습니까?”

5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지금 빵이 몇 덩이나 있느냐?”

“일곱 덩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6 예수께서 사람들을 땅에 앉게 하시고, 빵 일곱 덩이를 손에 들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뒤에, 빵을 찢개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 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대로 나누어 주었다. 7 그들에게 작은 물고기도 몇 마리 있어서, 예수께서 물고기에 대해 다시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다. 8 모두들 배불리 먹은 뒤에 남은 음식을 거두어 모았더니 남은 음식이 일곱 바구니에 가득 찼다. 9 음식을 먹은 사람은 사천 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흠어 보내셨다. 10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몇몇 사람이 예수의 권위를 의심하다

(마 16:1, 4; 눅 11:16, 29)

11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께 묻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려고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셨다면, 그것을 증명해 줄 기적을 보여 주십시오.”

† † **7:31 데가볼리** ‘10개의 도시’ 라는 뜻. 갈릴리 호수의 동쪽 지역을 가리킨다. 한때는 그 지역에 열 개의 주요 도시가 있었다.

12 예수께서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 사람들이 기적 같은 증거를 보고 싶어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너희에게는 ¶ 어떤 증거도 보여 주지 않겠다.” 13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떠나 배에 오르셨다. 그리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잘못 이해하다

(마 16:5-12)

14 제자들이 빵을 가져가는 것을 잊어버려서, 배에는 빵이 한 덩이밖에 없었다. 15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조심하여라. 바리새파와 헤롯의 누룩 § 을 경계하여라.”

16 제자들은 이 말씀의 뜻이 궁금하여 서로 수군거렸다.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누룩 이야기를 하시는 모양이다.”

17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예수께서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냐? 18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빵이 없을 때에 내가 한 일을 다 잊어버렸느냐? 19 내가 빵 다섯 덩이를 나누어 오천 명을 먹였을 때, 너희들이 거두어들인 빵 부스러기가 몇 바구니였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열두 바구니였습니다.”

20 “빵 일곱 덩이를 나누어 사천 명을 먹였을 때, 너희가 거두어들인 빵 부스러기는 몇 바구니였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일곱 바구니였습니다.”

21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한 일을 잘 기억하고 있구나.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하느냐?”

벧새다에서 눈먼 사람을 고치시다

22 예수와 제자들은 벧새다로 갔다.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왔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손을 대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23 예수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잡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에 침을 뱉고 손을 대며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느냐?”

24 그가 쳐다보며 대답하였다. “예,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들이 걸터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25 예수께서 그의 눈에 다시 손을 대시자 그의 눈이 크게 열렸다. 그의 눈이 나아서, 그는 모든 것을 똑똑하게 볼 수 있었다. 26 예수께서 그에게 집으로 가라고 이르시며 말씀하셨다. “마을로는 들어가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다

(마 16:13-20; 눅 9:18-21)

27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여러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곳으로 가는 동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 8:12 너희에게는 글자 그대로의 뜻은 ‘이 세대에게는’.

§ 8:15 누룩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거나 술을 빛을 때 쓰는 효소.

28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을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옛 선지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9 예수께서 물으셨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30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에게는 내가 누구인지 말하지 말아라.”

예수께서 당신이 죽으셔야 한다고 말씀하시다

(마 16:21-28; 눅 9:22-27)

31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에게 배척을 당해야 하며,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32 예수께서는 이것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를 한쪽으로 모시고 가서 그러서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 33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돌이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34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 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35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와 기쁜 소식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36 사람이 온 세상을 차지하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37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되찾을 수 있겠느냐? 38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음란하고 죄로 가득한 세대이다. 이런 세대에 살면서,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나와 나의 가르침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싸여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이 세상에 다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9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지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신 예수

(마 17:1-13; 눅 9:28-36)

2 그리고 몇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곳에는 그들만 있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예수의 모습이 달라지셨다. 3 그분의 옷은 새하얗고 눈부시게 빛났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그것보다 더 희게 만들 수 없을 정도였다. 4 그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예수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5 베드로가 예수께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으니 참 좋습니다. 우리가 세 분을 위해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선생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6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렇게 말하였다. 그들은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 8:28 세례자 요한 유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가르친 요한(막 1:4-8).

† 8:28 엘리야 기원전 850년 무렵에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

‡ 8:33 사탄 악마, 마귀, 귀신 따위의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말. 여기에서는 베드로가 사탄처럼 말했다는 뜻으로 쓰였다.

¶ 9:1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또는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다스리는 것을’.

§ 9:4 엘리야와 모세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중요한 두 지도자.

** 9:5 초막 풀이나 나뭇가지를 엮어 지은 간단한 집(신 16:13-17).

7 그때 구름이 다가와 세 분을 가렸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8 세 제자가 돌레를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만이 그들과 함께 계시 뿐이었다.

9 산 아래로 내려오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가 산에서 본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10 제자들은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그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일가를 놓고 자기들끼리 의논하였다. 11 그러다가 예수께 여쭈었다. “어찌하여 율법 선생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12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바로잡는다. 그런데 성경에 사람의 아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리라고 한 것은 무슨 까닭이겠느냐?

13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엘리야는 벌써 왔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에게 자기들이 하고 싶은 온갖 몫쓸 짓을 다 했다. 그를 두고 성경에 쓰인 그대로였다.”

병든 소년을 고치시다

(마 17:14-20; 눅 9:37-43)

14 예수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많은 사람이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율법 선생들도 와서 제자들과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15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반가워하며 달려와 인사를 하였다.

16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무슨 일로 그들과 다투고 있느냐?”

17 그때에 무리 속에서 한 남자가 나서며 대답하였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제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제 아들은 더러운 영[¶]이 들려 말도 제대로 못 합니다. 18 더러운 영은 아이에게 달려들어 아이를 땅바닥에 나뒹굴게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며 몸이 뻗뻗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더러운 영을 내쫓아 달라고 했으나,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19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내가 얼마나 더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얼마나 더 너희를 참아 주어야 하겠느냐?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너라.”

20 제자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다. 더러운 영은 예수를 보자 아이에게 심한 발작을 일으키게 하였다. 아이는 입에 거품을 물고 땅에 나뒹굴었다.

21 예수께서 소년의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이렇게 아픈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 아버지가 대답하였다.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22 더러운 영이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아이를 불이나 물 속에 던져 넣기도 하였습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아이를 고쳐 주십시오.”

23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대답하셨다. “‘할 수만 있다면 아이를 고쳐 주십시오.’ 라니, 그게 무슨 말이나? 믿는 사람에게는 못 할 일이 없다.”

24 아이의 아버지가 얼른 큰 소리로 말하였다. “믿습니다, 선생님! 의심을 버리고 더 잘 믿도록 도와주십시오.”

25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그 자리로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영[§]을 꾸짖으셨다. “너 더러운 영아! 이 아이를 듣지도 못하게 하고 말도 못 하게 하는 더러운 영아! 내가 명령한다. 이 아이에게서 나와, 다시는 아이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 † 9:11 엘리야 기원전 850년 무렵에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

‡ ‡ 9:11 엘리야가...와야 한다 말 4:5-6.

¶ ¶ 9:17 더러운 영 또는 ‘귀신’. 악마에게서 나온 악한 영.

§ § 9:25 더러운 영 또는 ‘귀신’. 악마에게서 나온 악한 영.

26 더러운 영은 소리치며 아이를 다시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떠나갔다. 그 소년이 마치 죽은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다.” 고 수군거렸다. 27 그러나 예수께서 소년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소년이 일어나 섰다.

28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가만히 예수께 여쭙었다. “어찌하여 저희는 더러운 영을 물리칠 수 없었습니까?”

29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런 종류의 더러운 영은 오직 기도만으로 물리칠 수 있다.”

자신의 죽음에 관하여 말씀하시다

(마 17:22-23; 눅 9:43-45)

30 예수와 제자들이 그곳을 떠나 갈릴리 지방을 지나가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어느 누구도 자기들이 있는 곳을 알기를 원치 않으셨다. 31 그것은 제자들을 따로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에게 잡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32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두려워서 예수께 무슨 뜻이냐고 여쭙지도 못하였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구?

(마 18:1-5; 눅 9:46-48)

33 예수와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곳의 한 집에 들어가신 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오늘 길에서 너희가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 무슨 일로 그리 다투었느냐?” 34 제자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인가 하는 문제로 서로 다투었기 때문이다.

35 예수께서 앉으신 뒤에 열두 사도를 불러 놓고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 싶은 사람은 꼴찌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36 그리고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부르셨다. 예수께서 그 아이를 제자들 앞에서 팔에 안으시고 말씀하셨다. 37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기쁘게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나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

(눅 9:49-50)

38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가 아니기에,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39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를 말리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베푸는 사람은 쉽게 나를 욕하지 못할 것이다. 40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41 만약 어떤 사람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여 물 한 잔이라도 준다면, 그는 분명히 상을 받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죄 짓게 하지 말아라

(마 18:6-9; 눅 17:1-2)

42 이 어린아이들 가운데 나를 믿는 아이 하나를 죄 짓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큰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차라리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뛰어드는 편이 나을 것이다.

43 네 손이 너를 죄 짓게 하면 그 손을 잘라 버려라. 네 몸의 한 부분을 잃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 9:29 기도 어떤 그리스어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으로라고 되어있다.

† 9:33 가버나움 갈릴리 지방에 있는 마을로,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다.

얻는 것이 낫다. 두 손을 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이 타고 있는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 쪽이 훨씬 낫다. ⁴⁴ [†] ⁴⁵ 네 발이 너를 죄 짓게 하거든 그 발도 잘라 버려라. 몸의 한 부분을 잃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더 낫다. 그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⁴⁶ [¶] ⁴⁷ 만약 네 눈이 너를 죄 짓게 하거든 빼어 버려라. 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⁴⁸ 지옥에서는 사람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 ⁴⁹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여지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

⁵⁰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그것을 다시 짜게 만들 수 있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지니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이혼에 대해 가르치시다

(마 19:1-12)

10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유대 지방과 요단 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다시 많은 사람이 예수를 찾아왔다. 예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그들을 가르치셨다.

²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왔다.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려고 이렇게 물었다. “남편이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³ 예수께서 되물으셨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였느냐?”

⁴ 바리새파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고 아내를 내보내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 [§]

⁵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굳은 마음 때문에 너희에게 그런 계명을 써 준 것이다. ⁶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⁷ ‘이것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어야 하는 까닭이다. ⁸ 그래서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 [†] ⁹ 어는 누구도 하나님께서 합하여 놓으신 것을 나누어 놓아서는 안 된다.”

¹⁰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예수와 제자들이 집 안에 있게 되었다. 제자들이 예수께 이 문제에 대하여 다시 여쭙었다. ¹¹ 예수께서 대답해 주셨다. “누구든지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남자는 자기 아내에게 간음[‡] 죄를 짓는 것이다. ¹² 마찬가지로 남편과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여자도 역시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어린아이들을 반기시다

(마 19:13-15; 눅 18:15-17)

¹³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려왔다. 그들은 예수께서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¹⁴ 예수께서 이것을

[†] **9:44** 절 어떤 그리스어 사본에는 48절과 똑같은 구절이 44절에 있다.

[¶] **9:46** 절 어떤 그리스어 사본에는 48절과 똑같은 구절이 46절에 있다.

[§] **9:48** 지옥에서는...꺼지지 않는다 사 66:24.

^{**} **9:49** 불 여기서 ‘불’은 ‘심판’ 또는 ‘시험’을 뜻하는 듯하다.

^{††} **9:49** 구약성경을 보면 희생제물에 소금을 뿌리게 되어있다. 따라서 모든 예수의 삶에 따르는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 시험을 받으며, 자신을 하나님에게 희생의 제물로 바쳐야만 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 **9:50** 소금 여기서 ‘소금’은 ‘상냥하고 친절한 성품’을 뜻하는 듯하나 분명하지는 않다.

[¶] **10:1** 요단 강 유대의 동쪽 지역에 있는 강으로, 북에서 남으로 흐른다.

[§] **10:4** 모세는...허락하였습니다 신 24:1

^{*} **10:6** 사람을 남자와...만드셨다 창 1:27.

[†] **10:8** 이것이 남자가...하나이다 창 2:24.

[‡] **10:11** 간음 아내나 남편이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가짐으로써, 순결을 지키겠다는 결혼 서약을 깨는 죄.

보고 화를 내시며 말씀하셨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이 차지할 것이다. ¹⁵ 내가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¹⁶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팔에 안으시고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어느 부자가 예수 따르기를 거부하다

(마 19:16-30; 눅 18:18-30)

¹⁷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려고 하는데, 한 남자가 예수께 달려와 무릎을 꿇고 인사하며 여쭙었다. “선하신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¹⁸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부르느냐? 어느 누구도 선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 ¹⁹ 그러나 네 물음에는 대답해 주겠다. 너는 이런 계명[¶]들을 다 알고 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

²⁰ 그 남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들을 모두 지켰습니다.”

²¹ 예수께서 그 남자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네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남아 있다. 가서 네 재산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한 뒤에 와서 나를 따라라.”

²² 그는 예수의 말씀에 울상을 짓고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²³ 예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로구나!”

²⁴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 얼마나 어려운지야느냐? ²⁵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보다 더 쉬운 일이다.”

²⁶ 제자들은 더욱 놀라 수군거렸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

²⁷ 예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이 일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

²⁸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²⁹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나를 위하여, 그리고 기쁜 소식을 위하여, 자신의 가정과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자식과 논밭을 두고 온 사람은, ³⁰ 그가 두고 온 것보다 백배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집과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자식과 논밭을 받게 될 것이다. 물론 그런 것들과 더불어 박해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다가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상으로 받게 될 것이다. ³¹ 지금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나중에 가장 낮은 자리로 가게 될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나중에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 다시 말씀하시다

(마 20:17-19; 눅 18:31-34)

³² 예수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셨다. 제자들은 놀라워하고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다시 열두 사도를 따로 불러놓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을 두고 말씀하였다. ³³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 10:19 계명 지켜야 할 명령, 법, 율법, 법률.

[§] 10:19 간음 아내나 남편이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가짐으로써, 순결을 지키겠다는 결혼 서약을 깨는 것.

^{**} 10:19 살인…공경하라 출 20:12-16; 신 5:16-20.

^{††} 10:24 들어가기가 어떤 고대 그리스어 사본에는 “재산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기가.”

가고 있다. 거기서 사람의 아들이 높은 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 † ‡ 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34 그들은 사람의 아들을 비웃고 그에게 침을 뱉을 것이다. 그들은 그를 채찍으로 때리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특별한 부탁을 드리다

(마 20:20-28)

35 세배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와서 말씀드렸다. “선생님, 우리 두 사람을 위해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36 예수께서 물으셨다.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해 주기 바라느냐?”

37 두 사람이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앞으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시게 될 때에, 우리 두 사람을 선생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혀 주십시오.”

38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지금 너희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내가 당해야 할 고통을 너희도 당할 수 있겠느냐? ¶ ¶ 그리고 내가 받아야 할 세례와 꼭 같은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겠느냐?” § §

39 두 사람이 대답하였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두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것과 똑같은 고통의 잔을 너희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받는 것과 똑같은 세례를 너희도 받게 될 것이다. 40 그러나 내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일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다.”

41 다른 열 명의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통을 터뜨렸다.

42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놓고 말씀하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세상의 통치자들은 힘으로 사람들을 지배한다. 그리고 지위가 높은 관리들은 권력을 휘두르기를 좋아한다. 43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44 누구든지 첫째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45 마찬가지로 사람의 아들도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려고 왔다.”

눈먼 사람을 고쳐 주시다

(마 20:29-34; 눅 18:35-43)

46 그리고 나서 예수와 제자들이 예리고*로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리고를 떠나실 때에 큰 무리가 뒤따르고 있었다. 길가에는 디매오의 아들 바디매오가 앉아 있었다. 그는 눈이 멀어서 늘 돈을 구걸하고 있었다. 47 그가 나사렛의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쳤다. “다윗의 자손 †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48 많은 사람이 그 눈먼 사람을 꾸짖으며 조용히 있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점점 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49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셨다. “저 사람에게 이리로 오라고 하여라.”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말하였다. “자, 힘을 내어 일어나게. 예수께서 부르시네.” 50 눈먼 사람은 벌떡 일어나 겹옷을 그 자리에 남겨 둔 채 예수께 갔다.

‡ † 10:33 이방 사람 유대 사람이 아닌 사람.

¶ ¶ 10:38 내가 당해야 할...있겠느냐 글자 그대로의 뜻은 “내가 마셔야 할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 § 10:38 꼭 같은 세례를...있겠느냐 여기서 ‘세례 받다’는 ‘고난의 세례를 받다’ 또는 ‘고난에 꼭 파묻히다’ 라는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다.

* 10:46 예리고 요단 강 남쪽 가까이에 있는 마을.

† 10:47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메시아)를 일컫는 이름. 다윗은 기원전 1000년 즈음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예수는 다윗 가문에서 태어나셨다.

51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 주기 바라느냐?”

눈먼 사람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52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는 곧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는 그 길로 예수를 따라나섰다.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

(마 21:1-11; 눅 19:28-40; 요 12:12-19)

11 예수와 제자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곧 올리브 산[‡]에서 가까운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두 제자를 불러 말씀하셨다. ²“저기 보이는 저 마을로 들어가거라. 마을에 들어서면 매어 놓은 어린 당나귀 한 마리를 보게 될 것이다. 사람을 한 번도 태워 보지 않은 당나귀다. 그 당나귀를 풀어서 이리로 끌어오너라. ³어찌하여 당나귀를 끌고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대답하여라. ‘주께서 쓰시려고 합니다. 쓰시고 나면 곧 돌려드릴 것입니다.’”

⁴두 제자가 마을로 들어갔다. 그들은 어느 집 대문 가까운 길에 매어 있는 어린 당나귀를 발견하였다. 제자들이 당나귀를 맨 줄을 풀었다. ⁵이것을 보고 그곳에서 있던 몇 사람이 물었다. “남의 당나귀를 풀어 가다니, 어떻게 된 일이지?” ⁶두 제자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⁷그들은 제자들이 당나귀를 예수께 끌고 가도록 허락해 주었다. 제자들은 당나귀 위에 그들의 걸옷을 깔았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위에 앉으셨다. ⁸많은 사람이 예수를 위해 걸옷을 벗어 길에 깔았다. 들판에서 나뭇가지를 잘라 와서, 그 가지를 길에 깔아 놓는 사람들도 있었다. ⁹예수의 앞에서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뒤에서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모든 사람이 외쳤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복되시다, 주의 이름으로 오는 분이시여!”[§]

¹⁰“복되여라! 다가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¹¹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성전으로 가셨다. 성전 안팎을 두루 걸어다니시며 모든 것을 둘러보시다가 날이 저물자 열두 사도와 함께 베다니로 가셨다.

무화과나무가 죽을 것을 말씀하시다

(마 21:18-19)

¹² 다음 날 베다니를 떠나실 때에 예수께서는 배가 많이 고프셨다. ¹³ 멀리서 앞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행여 나무에 열매라도 열려 있나 하여 가까이 가셨다. 그러나 앞만 무성할 뿐 열매는 찾을 수 없었다.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¹⁴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어느 누구도 다시는 네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예수의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다.

성전에 가신 예수

(마 21:12-17; 눅 19:45-48; 요 2:13-22)

¹⁵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으로 가셨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사람들을 쫓아내셨다. 그리고 돈 바꿔 주는 사람들의 책상과 비둘기

[‡] 11:1 올리브 산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산.

[¶] 11:9 찬양하라 글자 그대로는 ‘호산나!’, ‘호산나’는 ‘구원하소서!’ 라는 뜻의 히브리어. 여기서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찬양하는 기쁨의 외침이었을 것이다.

[§] 11:9 복되시다...분이시여 시 118:25-26.

^{**} 11:10 다윗 기원전 1000년 즈음에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

파는 사람들의 의자도 뒤엎으셨다.^{† †} 16 예수께서는 어느 누구도 물건을 들고 성전 뜰을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셨다. 17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다. “성경^{‡ ‡}에도 이렇게 쓰여 있다. ‘내 집은 모든 민족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집을 ‘도둑의 소굴’^{§ §}로 바꾸어 버렸다.”

18 높은 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죽일 방법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그분의 가르침에 놀라워하는 것을 보고 예수가 두려웠던 것이다. 19 저녁때가 되자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났다.

믿음의 힘을 보이시다

(마 21:20-22)

20 다음 날 아침 예수와 제자들이 무화과나무 곁을 지나다가 그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 21 베드로가 전날의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씀드렸다. “선생님, 보십시오!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죽어 있습니다.”

22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23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마음에 의심을 품지 않고 믿기만 하면, 이 산더러 ‘일어나 바다에 빠져라.’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2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기도로 간절히 구하여라. 기도드린 뒤에는 그것을 이미 받은 것으로 믿어라. 그러면 구한 것을 받게 될 것이다. 25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26 *}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의 권위를 의심하다

(마 21:23-27; 눅 20:1-8)

27 예수와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께서 성전 뜰을 거닐고 계셨다. 그때에 높은 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과 다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께 왔다. 28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그런 권한을 주었습니까?”

29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물어 보겠다. 너희가 내 물음에 먼저 대답하여라. 그러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대답하겠다. 30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런데 그 권한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받아 한 것이냐? 대답해 보아라.”

31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의 물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만약 우리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대답하면, 예수는 어찌하여 우리가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물을 것이다. 32 그러나 우리가 그 세례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대답하면...” (그들은 백성이 두려웠다. 모두를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33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대답하였다.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 † **11:15 돈 바꿔 주는...뒤엎으셨다** 로마 돈이나 그리스 돈을 유대 돈으로 바꾸어 성전에 바쳤으며, 비둘기는 제물용으로 팔고 있었다. 성전 바깥뜰인 이곳은 원래 다른 민족도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으나, 사기꾼들과 장사꾼들이 판을 치는 소란한 곳이 되어 있었다.

‡ ‡ **11:17 성경** 구약성경.

¶ ¶ **11:17 내 집은...불릴 것이다** 사 56:7.

§ § **11:17 도둑의 소굴** 렘 7:11.

* **11:26 26절** 어떤 그리스어 사본에는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26절이 덧붙여 있으나, 가장 오래된 그리스어 사본에는 없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다

(마 21:33-46; 눅 20:9-19)

12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를 들어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밭에 포도나무를 심었다. 포도밭 둘레에는 울타리를 두르고, 돌을 쪼아 포도즙을 짜낼 돌확[‡]을 만들고, 망대[¶]도 세웠다. 그리고 포도원을 몇 사람의 농부에게 세로 주고 여행을 떠났다. ²철이 바뀌어 포도를 딸 때가 되었다. 그래서 주인은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며 약속된 몫의 포도를 받아 오라고 하였다. ³그러나 농부들은 그 종을 잡아 매를 때렸다. 그리고 아무것도 주지 않은 채 그 종을 쫓아 버렸다. ⁴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다른 종을 보냈다. 농부들은 그 종을 모욕하고 머리를 때려 돌려보냈다. ⁵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냈으나, 농부들은 그를 죽이고 말았다. 주인은 농부들에게 많은 종을 보내어 보았다. 그러나 농부들은 번번이 그들을 죽이거나 때려서 보냈다.

⁶주인에게는 농부들에게 보낼 사람이 단 한 사람 남아 있었다.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주인은 농부들에게 이 아들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주인은 생각하였다.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⁷그러나 농부들은 서로 수군거렸다. ‘이 사람은 주인의 재산을 물려받을 아들이 아닌가? 자, 그를 죽이고 우리가 그의 재산을 차지하자!’ ⁸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잡아 죽여서 포도밭 너머로 던져 버렸다.

⁹이제 포도원의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포도원으로 가서 그들을 죽이고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놓을 것이다. ¹⁰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구절을 읽어 보았을 것이다.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오히려 그 집의 주춧돌[§]이 되었구나.

¹¹주께서 하시는 일이라,
우리에게는 놀랍게만 보인다.’”^{**}

¹²유대의 지도자들도 예수께서 하신 이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이것이 자신들을 두고 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예수를 잡아들이고 싶었으나,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는 수 없이 예수를 그대로 두고 돌아갔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 하다

(마 22:15-22; 눅 20:20-26)

¹³이런 일이 있는 뒤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트집잡아 올가미를 씌우고 싶었다. 그래서 바리새파와 헤롯 당^{††} 사람 몇을 예수께 보냈다. ¹⁴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께서 정직한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으십니다. 선생님께서는 참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시저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할까요, 내지 말아야 할까요?”

¹⁵예수께서 이들의 악한 속셈을 알아채시고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 하는구나.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내게 보여 나오.” ¹⁶그들이 그것을 예수께

[†] 12:1 비유 어떤 사물이나 생각을 설명하기 위해 쓰는 이야기 방식.

[‡] 12:1 돌확 돌을 오목하게 파서 만든 확.

[¶] 12:1 망대 망을 보기 위해 높이 지은 건물.

[§] 12:10 주춧돌 집을 지을 때 기초 공사의 중심이 되는 돌.

^{**} 12:11 시 118:22-23.

^{††} 12:13 헤롯 당 당시에 세력이 있던 유대의 정치 단체.

^{‡‡} 12:15 데나리온 고대 로마의 은돈.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

가져오자 예수께서 물으셨다. “이것이 누구의 얼굴이나? 그리고 누구의 이름이나?” 그들이 대답하였다. “시저의 얼굴과 이름입니다.”

17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주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크게 감탄하였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 하다

(마 22:23-33; 눅 20:27-40)

18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 사람들도 예수를 찾아와 물었다. 19 “선생님, 모세의 법에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결혼하여 자녀 없이 아내만 남기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여 죽은 형제의 뒤를 이을 아이들을 낳아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20 그런데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결혼하였으나 자녀가 없이 죽었습니다. 21 그래서 둘째가 형의 아내와 결혼하였으나, 그도 또한 자녀 없이 죽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셋째에게도 일어났습니다. 22 일곱 형제 모두가 형의 아내와 결혼하였으나 모두 자녀 없이 죽고, 마침내 그 여자도 죽고 말았습니다. 23 일곱 형제가 모두 한 여자를 아내로 삼았으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24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성경 ¶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이다. 25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에는, 장가들거나 시집가는 일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살 것이다. 26 너희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었을 것이다. 모세가 쓴 책 가운데 불타는 가시나무 덩불 §에 대한 부분이 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거기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며, 또 야곱의 하나님이다.’* 27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들은 정말로 죽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너희 사두개파 사람들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한가?

(마 22:34-40; 눅 10:25-28)

28 율법 선생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왔다. 그는 예수께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과 토론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예수께서 그들의 질문에 훌륭하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예수께 여쭙었다. “선생님, 모든 계명 † 가운데 첫째가는 계명은 어느 것입니까?”

29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모든 계명 가운데 첫째가는 계명은 바로 이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들어라! 우리 주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30 네 마음 ‡ 을 다하고, 네 영혼 ¶ 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힘 § 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31 또 둘째가는 계명은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 † 하는 것이다.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32 이 말을 듣고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선생님.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그밖에 다른 분이 없다는 선생님의 말씀은 정말 옳습니다. 33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 ¶ 12:24 성경 구약성경.

§ § 12:26 불타는 가시나무 덩불 출 3:1-12을 읽을 것.

* 12:26 나는…하나님이다 출 3:6.

† 12:28 계명 모세의 법.

‡ 12:30 마음 일반적으로 ‘지성’ ‘의지’ 를 상징한다.

¶ 12:30 영혼 일반적으로 ‘정서’ ‘감정’ 을 상징한다.

§ 12:30 힘 능력과 수단(부)을 의미한다.

** 12:30 이스라엘 백성아…사랑하여라 신 6:4-5.

† † 12:31 네 이웃을…사랑하여라 레 19:18.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이 계명들은 모든 번제물과 희생 제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

³⁴ 예수께서 그가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 있구나.”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예수께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인가, 다윗의 주이신가?

(마 22:41-46; 눅 20:41-44)

³⁵ 예수께서 성전에서 다시 가르치시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 선생들은 그리스도가 다윗 † †의 자손이라고만 하느냐? ³⁶ 성령의 도움으로 다윗 자신이 이렇게 말하였다.

‘주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셨다.

내 오른쪽에 앉아라.

그러면 내가 너의 적들을

네 발 아래 무릎 꿇게 하겠다.’ § §

³⁷ 다윗 자신이 그리스도를 ‘주’ 라고 불렀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그저 다윗의 자손이기만 하겠느냐?” 많은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였다.

율법 선생들을 꾸짖으시다

(마 23:6-7; 눅 11:43; 20:45-47)

³⁸ 예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다. “율법 선생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걸치고 돌아다니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시장에서 인사 받기를 즐긴다. ³⁹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칫집에서도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대접받기를 좋아한다. ⁴⁰ 그러면서 그들은 홀어미의 재산을 탐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길게 늘어놓는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무거운 벌을 내리실 것이다.”

한 홀어미가 헌금의 의미를 보여 주다

(눅 21:1-4)

⁴¹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아 사람들이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계셨다. 그때에 부자들이 많은 돈을 넣었다. ⁴² 그런데 남편을 잃은 한 가난한 여자가 작은 동전 두 개를 넣었다.

⁴³ 그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이 가난한 홀어미는 동전 두 닢 † 을 바쳤을 뿐이다. 그러나 이 여자는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돈을 하나님께 바쳤다. ⁴⁴ 다른 사람들은 넉넉한 살림에서 얼마를 바쳤다. 그러나 이 여자는 가난한 살림 속에서도 자신이 가진 돈 모두를 바쳤다. 그 돈은 이 여자가 먹고 살아야 할 돈이었다.”

* † **12:33** 이 계명들은...더 중요합니다 삼상 15:22.

† † **12:35** 다윗 기원전 1000년 즈음에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

§ § **12:36** 시 110:1.

* **12:41** 헌금함 하나님께 바치는 돈이나 선물을 넣는 께.

† **12:43** 동전 두 닢 그리스어로는 ‘두 렘돈’. 렘돈은 유대 동전으로서, 한 렘돈은 로마의 가장 작은 동전 한 고드란트의 절반에 해당된다.

앞으로 있을 성전의 파괴
(마 24:1-25; 눅 21:5-24)

13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 걸어 나오고 계셨다. 그때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큰 소리로 말하였다. “선생님, 좀 보십시오! 성전이 참으로 멋집니다! 무척 큰 돌들을 써서 지은 건물입니다!”

²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건물을 보고 놀라느냐? 두고 보아라. 돌 하나도 제 자리에 놓여 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³ 그 뒤에 예수께서 올리브 산[‡]에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아가 만히 여쭈었다. ⁴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이르렀음을 알리는 징조로,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⁵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⁶ 많은 사람이 와서 내 이름을 앞세워 ‘내가 그리스도이다.’ 라고 떠들며,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⁷ 너희는 전쟁 소식을 듣거나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듣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겠지만, 아직 끝이 온 것은 아니다. ⁸ 한 민족이 일어나 다른 민족을 치고, 나라들도 서로 들고 일어나 싸울 것이다.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고, 여기저기에서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은 아기를 낳으려는 여자가 겪는 것과 같은 고통의 시작일 뿐이다.

⁹ 정신을 바짝 차려라. 사람들이 너희를 붙잡아 재판관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회당에서 너희를 매질할 것이다. 너희는 나 때문에 왕과 총독들 앞에서, 내게서 들고 본 것을 그들에게 증언하게 될 것이다. ¹⁰ 그러나 이런 일들에 앞서 먼저 기쁜 소식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한다. ¹¹ 너희가 체포되어 법정에서 서게 될 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일러 주실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¹² 형제가 서로 배반하여 자신의 형제를 죽을 자리에 넘겨줄 것이다. 아버지도 자식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자식이 부모에게 반항하며 들고 일어나 부모를 죽게 할 것이다. ¹³ 그리고 너희는 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참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것이다.

¹⁴ 너희는 ‘파괴를 일으키는 끔찍스러운 것’[¶]을 볼 것이다. 너희는 그것이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서 있는 것을 볼 것이다. (이것을 읽는 사람은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때[§]에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¹⁵ 망설이거나 주춤거려서는 안 된다.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물건을 가지러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¹⁶ 들에 있는 사람은 겹옷을 가지러 집으로 가지 말아라. ¹⁷ 이런 때 아기 밴 여자들이나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하다. ¹⁸ 너희는 겨울이나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¹⁹ 그때가 되면 무섭고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큰 어려움은 세상이 생긴 때부터 이제까지 없었던 일이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²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기간을 줄여 주지 않으신다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도와주시려고 그 기간을 줄여 주셨다. ²¹ 그때에 어떤 사람이 ‘보아라,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라고 하거나, 또는 ‘보아라, 저기에 그분이 있다!’ 라고 말하더라도, 그 말을 믿지 말아라. ²²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해 보여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도 속이려고 할 것이다. ²³ 그러니 조심하여라.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알려 주는 것이다.

[‡] 13:3 올리브 산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여기서 성전 지역을 내려다볼 수 있었다.

[¶] 13:14 파괴를 일으키는 끔찍스러운 것 단 9:27; 11:31; 12:11을 볼 것.

[§] 13:14 그때 ‘중대한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눅 21:31).

인자 예수가 다시 올 때
(마 24:29-51; 눅 21:25-36)

24 이 고난 뒤에 이어지는 기간 동안에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을 것이다.
25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천체들이 흔들릴 것이다.’**

26 그 뒤에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권세와 영광에 싸여 이 세상에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27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그의 택한 백성을 세상 구석구석에서 불러모을 것이다.

28 무화과나무에서 너희가 배울 교훈이 있다.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푸르러지고 부드러워지면서 잎이 돋기 시작하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안다. 29 내가 앞으로 일어나리라고 너희에게 이야기한 일들도 마찬가지이다. 너희가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사람의 아들이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30 내가 분명히 말한다. 이 세대 사람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31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32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의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신다. 33 조심하여라!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34 그것은 마치 집을 떠나 여행을 가는 사람의 이야기와도 같다. 그는 집을 떠날 때에 종들에게 집을 잘 돌보도록 각자에게 일을 맡긴다. 문지기에게는 깨어서 잘 지키라고 이른다. 35 그러니 너희들도 깨어 있어라. 너희는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가 저녁에 올지, 한밤중에 올지, 닭이 우는 새벽에 올지, 아침에 올지 너희는 모른다. 36 깨어 있지 않으면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너희들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37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우다

(마 26:1-5; 눅 22:1-2; 요 11:45-53)

14 유월절과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명절 이틀 전이었다. 높은 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몰래 잡아 죽일 수 있을까 궁리하고 있었다. 2 그러면서도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킬지도 모르니 명절은 피하자고 하였다.

한 여자가 예수께 향유를 부어 드리다

(마 26:6-13; 요 12:1-8)

3 예수께서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음식을 잡숫고 계셨다. 시몬은 나병환자였던 사람이었다. 그때에 어떤 여자가 값진 나드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예수께 왔다. 여자는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4 그 자리에 있던 몇몇 사람이 이것을 보고 화를 내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왜 이렇게 향유를 낭비하는 거야? 5 저런 값비싼 향유라면 일 년 치 품삯††보다 더 많은 돈을 받고 팔 수 있었을 텐데!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었더라면 좋았을 것 아닌가!” 그들은 여자를 나무랐다.

6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 여자를 가만 내버려 두어라. 이 여자는 나를 위해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7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마음만 먹으면

** 13:25 사 13:10 34:4.

†† 14:5 일 년 치 품삯 글자 그대로는 ‘300데나리온’, ‘데나리온’을 볼 것.

그들을 어느 때든지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언제나 같이 있지 않을 것이다. ⁸내 장례를 위하여 내 몸에 미리 향유를 부었으니,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다. ⁹내가 분명히 말한다.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해질 것이다. 그리고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곳 어디에서나 이 여자를 기려 이 여자가 한 일을 말하게 될 것이다.”

유다가 예수의 적들을 돕기로 하다

(마 26:14-16; 눅 22:3-6)

¹⁰ 열두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높은 제사장들을 만나러 갔다. 그는 가리옷 사람 유다로,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 생각을 하고 있었다. ¹¹ 높은 제사장들은 그의 제안을 듣고 좋아하였다. 그들은 유다에게 예수를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엿보기 시작하였다.

유월절 식사

(마 26:17-25; 눅 22:7-14, 21-23; 요 13:21-30)

¹²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명절의 첫날이었다. 이 날은 유대 사람들이 유월절에 쓸 양[‡]을 잡는 날이었다.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여쭙었다. “저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드실 유월절 잔치 음식을 마련하면 좋겠습니까?”

¹³ 예수께서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을 보내며 말씀하셨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남자를 따라가거라. ¹⁴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그 집 주인을 만나서 이렇게 말하여라. ‘선생님께서 이렇게 여쭙어 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쓸 손님방이 어디 있느냐? 내가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잔치 음식을 먹으려고 한다.’ ¹⁵ 그 집 주인은 너희에게 이층에 있는 큰 방을 보여 줄 것이다. 그 방은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 언제든지 쓸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곳에 우리가 먹을 음식을 준비해 놓아라.”

¹⁶ 두 제자가 성 안으로 들어가 보니 모든 일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 있었다. 그들은 거기에 유월절 잔치 음식을 차려 놓았다.

¹⁷ 저녁에 예수께서 열두 사도와 함께 그 집으로 가셨다. ¹⁸ 모두 상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너희 열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다.”

¹⁹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걱정이 되어, 저마다 예수께 여쭙었다. “설마 저는 아니겠지요?”

²⁰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 열둘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는 나와 같은 그릇에 빵을 적서 먹는 사람이다. ^{¶ ¶} ²¹ 사람의 아들은 성경^{§ §}에 쓰여 있는 대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을 죽이라고 넘겨주는 사람에게는 큰 화가 미칠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편이 좋았을 것이다.”

마지막 저녁 식사

(마 26:26-30; 눅 22:15-20; 고전 11:23-25)

²²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집어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다. “이 빵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 ‡} **14:12 유월절에 쓸 양** 유월절 축하의 뜻으로 잡아 희생 제사로 드리는 양(출 12:3-9).

^{¶ ¶} **14:20 그는 나와 같은 그릇에…사람이다** 유대 사람들은 채소나 빵을 그릇에 담긴 국물에 적서 먹었다.

^{§ §} **14:21 성경** 구약성경.

23 그런 다음 예수께서 포도주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뒤에, 제자들에게 주셨다. 모든 제자들이 그 잔에서 포도주를 마셨다.

24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포도주는 내 피다. 내 피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려 하시는 새로운 계약의 시작이다. 이 피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뿌려질 것이다. 25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될 그날까지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26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난 다음, 밖으로 나가 올리브 산*으로 갔다.

제자들이 모두 예수를 버릴 것이다

(마 26:31-35; 눅 22:31-34; 요 13:36-38)

27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믿음을 잃게 될 것이다. 성경 †에 그렇게 쓰여 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 떼가 모두 흩어지리라.’ ‡

28 그러나 나는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로 가겠다. 너희보다 먼저 그곳에 가 있겠다.”

29 베드로가 말하였다.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30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오늘 저녁 너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31 그러나 베드로는 강하게 부인하였다. “저는 결코 선생님을 모른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선생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똑같이 말하였다.

예수께서 홀로 기도하시다

(마 26:36-46; 눅 22:39-46)

32 예수와 제자들은 겟세마네 ¶ 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어라.”

33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조금 더 올라가셨다. 예수께서는 괴로움과 걱정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영이 § 괴로워 죽을 지경이구나. 34 너희는 여기 남아서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35 예수께서 세 제자를 남겨놓고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서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할 수만 있다면 이 고통의 시간이 자신을 비켜가게 해 달라고 기도하셨다. 36 “아바,** 아버지! 아버지는 무슨 일이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서 이 고통의 잔을 치워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37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로 돌아와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셨다.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시몬아! 네가 자고 있느냐? 너는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38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는데 몸이 약하구나.”

39 예수께서 한 번 더 따로 가서서 같은 기도를 하셨다. 40 그리고 돌아와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너무 졸려서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 14:26 올리브 산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산.

† 14:27 성경 구약성경.

‡ 14:27 속 13:7.

¶ 14:32 겟세마네 올리브 산 기슭에 있다.

§ 14:33 내 영이 또는 ‘내 영혼이’.

** 14:36 아바 ‘아빠’ 라는 뜻의 아람어로, 아버지를 부르는 정다운 말.

41 예수께서 세 번째 기도를 마친 뒤에 제자들에게로 오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직도 자며 쉬고 있느냐? 이제 그만큼 잤으면 됐다. 시간이 다 되었다. 보아라, 사람의 아들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진다. 42 일어나라. 가자! 보아라! 저기 나를 넘겨줄 자가 오고 있구나.”

예수께서 잡히시다

(마 26:47-56; 눅 22:47-53; 요 18:3-12)

43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시는데 유다가 가까이 왔다. 그는 열두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유다는 많은 사람과 함께 왔다. 이들은 높은 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다.

44 유다는 그들에게 신호를 보내기로 미리 약속해 놓고 있었다.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यो. 그를 붙잡아 단단히 끌고 가시오.” 45 그래서 유다는 예수께 다가와 “선생님!” 하고 불렀다. 그리고 예수께 입을 맞추었다. 46 그러자 사람들이 달려들어 예수를 붙잡았다. 47 예수 가까이에서 있던 제자 하나가 칼을 빼어 들었다. 이 제자는 대제사장 † † 의 종을 쳐서 그의 귀를 잘랐다.

48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잡으려고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오다니, 내가 강도라도 된단 말이나? 49 나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며 너희와 함께 있었지만, 너희는 그곳에서 나를 잡지 않았다. 그러나 성경 ‡ ‡ 에서 말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

50 그때에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다.

51 한 젊은이가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는 몸에 홰이불만을 걸치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 젊은이도 같이 잡으려고 하였다. 52 그러자 그는 걸치고 있던 홰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도망쳤다.

유대 지도자들 앞에 서신 예수

(마 26:57-68; 눅 22:54-55, 63-71; 요 18:13-14, 19-24)

53 예수를 체포한 사람들은 그분을 대제사장 ¶ ¶ 에게로 끌고 갔다. 다른 높은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 선생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 54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따라갔다. 그는 대제사장의 집 마당 안으로 들어가 경비원들과 함께 앉아, 그곳에 있는 화롯불 곁에서 불을 쬐었다.

55 높은 제사장들과 모든 유대 의회 의원들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에게 불리한 증거를 찾고 있었다. 그러나 그럴 만한 증거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56 많은 사람이 예수께 불리한 증거를 댔지만, 그들의 말이 서로 달랐다. § §

57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에 대해 이런 거짓 증거를 댔다. 58 “우리는 예수가 ‘나는 사람이 만든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뒤에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새 성전을 세우겠다.’ 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59 그러나 그들의 증거조차도 서로 엇갈렸다.

60 그러자 대제사장이 모든 사람 앞에 서서 예수께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당신은 대답할 말이 없소?” 61 그러나 예수께서는 계속 입을 다물고 물음에 대답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은 예수께 다시 물었다. “당신이 찬송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 요?”

† † **14:47 대제사장** 유대 제사장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제사장이며 지도자인 사람.

‡ ‡ **14:49 성경** 구약성경.

¶ ¶ **14:53 대제사장** 유대 제사장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제사장이며 지도자인 사람.

§ § **14:56 그들의 말이 서로 달랐다** 유대 율법에는 두 사람 이상이 같은 증거를 대야만 사람을 고소할 수 있었다.

62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소. 내가 사람의 아들이요. 당신들은 앞으로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도 보게 될 것이요.”

63 대제사장은 이 말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으며 말하였다. “우리에게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64 여러분 모두 그가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는 죄를 짓는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의 죄가 커서 죽어 마땅하다고 말하였다. 65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 침을 뱉고, 그분의 눈을 가리고 때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말하였다. “누가 너를 때렸는지 알아맞혀 보아라.” 예수를 넘겨받은 경비원들도 그분을 때렸다.

베드로가 무서워서 예수를 모른다고 말하다

(마 26:69-75; 눅 22:56-62; 요 18:15-18, 25-27)

66 베드로가 뜰 아래쪽에 있을 때에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지나갔다. 67 그 여종은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는 다가와 그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녔군요.”

68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하였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요? 나는 당신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소.” 그는 이렇게 말하고 대문밖에 갔다.*

69 그 여종은 베드로가 아직도 대문밖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다시 돌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수를 따라다니던 사람이예요!” 70 베드로는 다시 그 말을 부인하였다.

조금 뒤에 베드로의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말하였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니 틀림없이 예수를 따라다니던 패거리들 가운데 하나일 거요.”

71 그러자 베드로는 거짓말이면 천벌이라도 받겠다고 하며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도 못합니다!”

72 베드로가 이 말을 한 뒤에 닭이 두 번째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시던 말씀이 생각났다. 그는 정신없이 울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를 심문하다

(마 27:1-2, 11-14; 눅 23:1-5; 요 18:28-38)

15 아침이 되자마자 높은 제사장들은 장로들과 율법 선생들과 모든 의회 의원들과 더불어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묶어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그에게 예수를 넘겨주었다.

2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의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소. 당신이 말한 그대로요.”

3 높은 제사장들이 예수를 여러 가지 죄목으로 고발하였다. 4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다시 물었다. “당신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겠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일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

5 그러나 예수께서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빌라도는 예수의 태도에 놀랐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 주려 하나 실패하다

(마 27:15-31; 눅 23:13-25; 요 18:39-19:16)

6 해마다 유월절 기간에는 총독이 감옥에서 죄수 한 명을 놓아 주는 일이 있었다. 그는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을 놓아 주었다. 7 그때 감옥에는 바라바라는 죄수가 있었다. 그는 폭도들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들은 폭동 때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들이었다.

8 사람들이 떼를 지어 빌라도에게 가서 늘 하던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 달라고 청하였다.

* 14:68 68절 몇몇 초기 사본에는 ‘그리고 닭이 울었다.’ 라는 부분이 덧붙여 있다.

9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은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을 놓아 주기를 원하시오?”
 10 빌라도는 높은 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자신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11 그러나 그 제사장들은 무리를 부추겨서, 빌라도에게 오히려 바라바를 놓아 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12 빌라도는 그들에게 다시 물었다. “여러분이 유대 사람의 왕이라 부르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소?”

13 무리가 외쳤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14 빌라도가 물었다. “무슨 까닭이요? 그가 무슨 죄를 저질렀소?”

사람들은 점점 더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15 빌라도는 무리의 마음을 사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바라바는 풀어 주고, 예수는 채찍으로 때린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16 군인들이 예수를 궁전, 곧 총독 관저[†]로 끌고 갔다. 그들은 온 부대를 불러모았다.

17 군인들은 예수께 보라색 옷을 입히고, 가시나무로 왕관을 만들어 예수의 머리에 씌웠다.

18 그리고 큰 소리로 예수를 놀리기 시작하였다. “유대 사람의 왕이여, 안녕하십니까?”

19 군인들은 막대기로 예수의 머리를 마구 쳤다. 그들은 예수께 침 뱉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인사하는 체하며 놀렸다. ²⁰이렇게 예수를 괴롭힌 뒤에, 그들은 예수에게서 자주색 옷을 벗기고 다시 그분의 옷을 입혔다. 그리고 그분을 총독 관저에서 데리고 나와 십자가에 매달려고 끌고 갔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마 27:32-44; 눅 23:26-39; 요 19:17-19)

21 예수를 끌고 가는 길에 군인들은 시골에서 성으로 들어오는 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 군인들은 시몬을 붙잡아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하였다. ²²그들은 예수를 끌고다라는 곳으로 끌고 갔다. (끌고다는 ‘해골의 골짜기’ 라는 뜻이다.) ²³끌고다에서 군인들은 예수께 몰약을 탄 포도주를 먹이려 하였으나, 예수께서 거절하셨다. ²⁴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그들은 누가 어떤 옷을 차지할 것인지 주사위를 던져 결정하였다.

25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시각은 아침 아홉 시였다. ²⁶예수의 죄목을 쓴 팻말에는 ‘유대 사람의 왕’ 이라고 쓰여 있었다. ²⁷군인들은 예수와 함께 두 명의 강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의 오른쪽과 왼쪽에 하나씩 그들의 십자가를 세워 놓았다. ²⁸[¶]²⁹사람들은 그 옆을 지나가며 예수를 심한 말로 욕하였다. 그들은 머리를 흔들며 말하였다. “어이구! 성전을 부수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하던 사람 아니야? ³⁰어디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너 자신이나 구해 보시지!”

31 높은 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도 그곳에 있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를 괴롭혔다. 그들은 서로 이렇게 말하였다. “그가 다른 사람들은 구해 주었는데, 자신은 구할 수 없나 봅시다. ³²그가 진짜로 그리스도이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신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보고 믿을 것 아닙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어 가고 있던 두 강도들도 똑같이 예수를 괴롭히는 말을 하였다.

[†] 15:16 **총독 관저** 그리스어로는 ‘프라이토리온’.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총독의 관저로서, 유대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모든 로마의 기관이 이곳에 있었다.

[‡] 15:21 **구레네** 북아프리카 지역(지금의 리비아)에 있는 도시. 구레네로 가서 살던 유대 사람들이 더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살고 있었다.

[¶] 15:28 **28절** 어떤 그리스어 사본에는 “이렇게 하여 ‘그들이 그를 범죄자들과 함께 놓아두었다.’ 라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는 28절이 들어 있다.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다

(마 27:45-56; 눅 23:44-49; 요 19:28-30)

33 열두 시쯤에 온 땅에 어둠이 내렸다. 이 어둠은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34 세 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35 그곳에 서 있던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말하였다. “들어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소.”**

36 한 사람이 달려가서 갓숨^{††}을 신 포도주에 푹 적셔서 가져 왔다. 그리고 그 갓숨을 막대기에 묶어 예수의 입에 대어 마시게 하며 말하였다. “자! 이제 기다려 봅시다. 엘리야가 와서 그를 십자가에서 내려 주는지 구경 한번 해 봅시다.”

37 그때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신 뒤에 숨을 거두셨다.

38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에 성전 휘장^{‡‡}이 두 쪽으로 찢어졌다. 위에서 시작해서 바닥까지 완전히 찢어졌다. 39 예수 앞에 서 있던 한 백인대장^{¶¶}은 예수께서 큰소리를 지르고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40 몇몇 여자들이 십자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 가운데에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살로메도 있었다. 41 이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를 따르고 돕던 사람들이었다. 이들 말고도 예수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온 많은 여자들이 그곳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묻히시다

(마 27:57-61; 눅 23:50-56; 요 19:38-42)

42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에, 43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주검을 내달라고 청하였다. 요셉은 존경받는 의회 의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44 빌라도는 예수가 이미 죽었다는 말을 듣고 놀랐다. 그는 백인대장^{§§}을 불러서 예수가 벌써 죽었는지 물었다. 45 그는 백인대장에게서 예수가 이미 숨을 거두었다는 말을 듣고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예수의 주검을 넘겨주었다. 46 요셉은 고운 베를 사 가지고 와서, 예수의 주검을 십자가에서 내려 그 베로 싼 뒤에,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모셨다. 그리고 큰 돌을 굴려서 무덤 어귀를 막았다. 47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가 묻힌 곳을 보아 두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

(마 28:1-8; 눅 24:1-12; 요 20:1-10)

16 안식일이 지나자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의 몸에 바를 향료를 샀다. 2 안식일 다음 날,^{*} 곧 한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그들은 예수의 무덤으로 갔다. 3 그들은 “누가 무덤 어귀를 막고 있는 돌을 치워 줄까요?” 하고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

[§] 15:34 나의 하나님...버리셨습니까 시 22:1.

** 15:35 그가...있소 ‘나의 하나님’이란 뜻의 ‘엘로이’ 또는 ‘엘리’가 사람들에게는 ‘엘리아’라는 이름처럼 들렸던 것 같다. 엘리야는 기원전 850년 무렵에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

†† 15:36 갓숨 하면 또는 스폰지.

‡‡ 15:38 성전 휘장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와 다른 부분을 갈라 놓는 휘장.

¶¶ 15:39 백인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 군대의 장교.

§§ 15:44 백인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 군대의 장교.

* 16:2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은 지금의 토요일이므로, 안식일 다음 날은 일요일이 된다.

4 그러나 그들이 무덤에 이르러서 보니 그 큰 돌이 치워져 있었다. 5 그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흰 옷을 입은 한 젊은 남자가 무덤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다.

6 그 젊은 남자가 말하였다. “놀라지 말아라. 너희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다. 그러나 그분은 살아나셨다.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들이 그분의 주검을 모셨던 자리를 보아라. 7 자,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예수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너희들은 전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갈릴리에서 그분을 만날 것이다.’”

8 여자들은 몸을 부들부들 떨며 넓이 나간 채 무덤에서 나와 도망하였다. 그들은 너무 무서워서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몇몇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다

(마 28:9-10; 요 20:11-18; 눅 24:13-35)

9 한 주간의 첫날, 곧 일요일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예수께서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에게 맨 처음으로 나타나셨다. 예전에 예수께서 일곱 귀신‡을 쫓아내 주신 적이 있는 여자였다. 10 마리아가 예수를 본 뒤에,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은 매우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 11 마리아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살아 계시며, 자기가 직접 예수를 보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 여자의 말을 믿지 않았다.

12 그 뒤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시골길을 가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예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13 두 사람이 되돌아와서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신 이야기를 전하였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사도들에게 말씀하시다

(마 28:16-20; 눅 24:36-49; 요 20:19-23; 행 1:6-8)

14 그 뒤에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믿음이 없고 고집이 센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살아나신 예수를 뵈는 사람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5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여라. 16 누구든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17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를 것이다.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배운 적이 없는 새로운 언어로 말을 하고, 18 뱀으로 뱀을 잡아 들 것이다. 그들은 독을 마셔도 전혀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다

(눅 24:50-53; 행 1:9-11)

19 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20 제자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주께서

† 16:8 현재 남아 있는 마가복음 사본 가운데 두 개의 가장 오래된 그리스어 사본은 여기에서 끝난다. 다른 사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덧붙여 있다. “그들은 곧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지시 받은 대로 전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을 동쪽과 서쪽으로 보내시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 16:9 귀신 마귀에게서 나온 악한 영.

¶ 16:17 귀신 마귀에게서 나온 악한 영.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표적이 따르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기쁜 소식이 사실임을 증명해 주셨다.